

김현정의 뉴스쇼: 뉴진스

2024.12.25 08:00, CBS, 크리스마스 특집 미니콘서트

TRANSCRIPT ARCHIVE

문서 공개일: 2024.12.26

이 문서는 개인 감상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C 혹은 어플에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3NEVERDIE

1. [0:00:00]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 [0:06:24] 기부와 여의도집회 서포트
3. [0:09:55] 마니또 게임, Hurt 리믹스 비하인드
4. [0:17:10] Darling, Darling
5. [0:27:51] 택시 스몰토크
6. [0:33:00]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7. [0:39:53] First December With You
8. [0:44:11] 산타는 없어, 조용한 링크, 평범하지 않아서
9. [0:52:05] Weightless
10. [1:00:44] 가족이 됐습니다, 사람으로서 모여있는게 제일 좋아요
11. [1:08:39] 우리가 가까워진 2년, 무대를 하는 순간, 성장했던 한 해
12. [1:17:58] IT'S SUPERNATURAL

[영상 링크](#) (플버전)



1. [0:00:00] 고요한 밤, 거룩한 밤

(♫'DITTO'가 흘러나온다)

김현정 : 크리스마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따뜻한 미니콘서트를 열어볼까 합니다. 진짜 뉴스쇼가 맞아? 아마 우리 애청자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지금 흐르는 이 곡의 주인공들입니다.

(♫'DITTO'가 잠시 크게 흐른다)

김현정 :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온 5명의 천사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그리고... 혜인.

(뉴진스, '혜인'을 다같이 말한다, 다들 웃음)

김현정 : 먼저 목소리로 함께하시죠.

뉴진스 : 와아, 안녕하세요!

[♪뉴진스 -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김현정 : 와, 야... 너무 아름답다. 아니 제가 앞에 그 '다섯명의 천사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혹시라도 천사 같지 않은 어떡하나 (뉴진스 웃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정말 천사 같은 5명의 소녀들. 반갑습니다.

뉴진스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 : 우리 뉴스쇼 애청자들에게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다니엘 씨부터.

다니엘 : 네! 어, 어디를 볼까요?

김현정 : 이쪽 카메라, 예.

다니엘 :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현정 :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 씨?

팜하니 : 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김현정 :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린 씨?

강해린 : 안녕하세요, 해린입니다. 반가워요.

김현정 :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지 씨?

김민지 :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김현정 :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혜인 : 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김현정 : 아니 그 저희가, 방송국의 특징이 뭐냐면 어지간한 스타들이 와도 직원들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바깥에 보이세요? 저기... 손 한번... *(다들 웃으면서 손을 흔든다)* 모두들 흥분해서 1시간 전부터. 정말 반갑습니다. 이 라디오 무대에선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어요 다니엘 씨.

다니엘 : 정말 오래됐어요. 네, 거의 2년 만에 라디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서 저도 약간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될지... 약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김현정 : 어리둥절할 정도로

다니엘 : 네. 근데 너무 좋네요.

김현정 : 티비하고는 뭔가 다른 아늑함 같은 게 있죠.

다니엘 : 맞아요.

김현정 : 라디오만의.

김민지 : 확실히 라디오만의 약간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 따뜻한.

김현정 : 우리 다섯 분이 이 저 트리 보고 지금 감동하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다니엘 : 맞아요.

김현정 : 요거, 오로지 다섯 분을 위한 트리입니다. 원래 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뉴진스
호응)

다니엘 : 진짜 감동이다.

김현정 : 요기 아래 선물 보이세요? 요 아래 선물 박스? 예 요거는, 요거는 빈 겁니다.
(뉴진스 웃음) 예 가져가지는 마시구.

다니엘 : 그래도 너무 예뻐요. 감동.

김현정 : 아 우리 또 이 다섯 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저도 너무나 설렌데, 조금 전에 첫
곡으로 불러주신 그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뉴진스 : 맞아요) 다섯 분이 첫 곡을 뭘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니엘 : 맞아요)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혜인 씨?

이혜인 : 올해 네, 연말이 되면 뭔가 늘 그 해에 있었던 다양한 슬픈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나,
물론 기쁜 일도 같이 떠오르긴 하지만 슬픈 일들도 같이 떠올르잖아요. 뭔가 힘들었던
일들이랑. 근데 뭔가 모든 분들이 이맘때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 뭔가
그런 분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김현정 : 와, 너무 아름답다. 이 다섯 분의 소녀들이 알고 고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래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세계 제1차 대전 때 전쟁은 한창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오잖아요. 독일군의 참호, 영국군의 참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일군 병사 하나가 참호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군 병사가 참호에서 나오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병사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악수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다니엘 : 너무 뜻깊다...

김현정 : 그리고 그날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총성이 없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이런 배경이
있는 노래예요. 모르고 고르셨구나 (다들 웃음)

이혜인 : 이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몰랐지만 뭔가 그 에피소드를 뭔가 정확하게는 아니었지만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되게 더 의미가 있는 곡인 것 같아서 (김현정 :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더 '고르길 잘했다'.

김현정 : 잘 골랐습니다. (웃음)

2. [0:06:24] 음악 이외의 나눔, 여의도집회 서포트

김현정 :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평화, 나눔, 위로.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동안 상당히 나눔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은 소문을 좀 내는 게 좋으니까 괜찮죠? 제가 소개해도 괜찮죠? 데뷔 이후에 음반 수익금 기부는 뭐 계속 해왔고, 올해는 대학축제 수익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 그리고 지진 피해 튀르키예 시리아 주민들을 위한 기부를 했고, 연말을 맞아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한 1억 원 기부. 와!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울림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한 건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요렇게 좀 기부를 해야겠다, 사랑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

다니엘 : 데뷔때부터 음악으로 여러 약간, 많은 분들께 이제 행복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음악으로 느낀 뭔가의 위로? 그리고 그런 즐거운 순간들을 약간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음악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뭔가에 이렇게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감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섯명 다 네, 되게-

김현정 : 흔쾌히.

다니엘 : 네!

김현정 : 바로 고거죠. 얼마 전에는 탄핵 집회에 팬들 춤지 말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팬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과 음료수와... 선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니엘 : 네! 아, 날씨도 뭔가 너무 춥고 그리고 그냥,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속도 따뜻해지고, 약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대화 나누면서 더 그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김현정 : 그렇죠.

다니엘 : 그래서 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현정 : 와. 몇 인분? 하니 씨 몇 인분인지 기억나세요?

이혜인 : 오백...

김민지 : 520인분. (웃음)

김현정 : 520인분? 어, 바깥에서 우리 작가가...

[자막 : 김밥 110인분, 음료 250잔, 삼계탕 100그릇, 온반 50그릇, 만둣국 50그릇 등 총 560인분 선결제]

이혜인 : 550...?

김민지 : 560이요...? (뉴진스 놀람)

김현정 : 560인분! (웃음) 이야...

이혜인 : 500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김현정 : 진짜 많이 했네요. 팬들 반응이 어땠어요?

강해린 : 버니즈들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버니즈뿐만 아니라 다른 팬분들? 그냥, 맞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서 그분들도 너무 따뜻하게 드셨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김현정 :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여의도 풍경을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 정말 많았고, 특히 여성들의 에너지 엄청났어요.

김민지 : 그, 제가 이제 버니즈 분들의 제보를 받은 게, 이렇게 서로 응원봉을 모아서 사진도 찍고 되게 많은 팬분들이랑 먹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김현정 : 인증샷까지.

김민지 : 그래서 너무 되게 뿌듯하고, 뭔가 아까 이 곡 선곡한 이유도 뭔가 이번 연말에 되게 많은, 좀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나마 도움이 됐구나 싶어서 너무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김현정 : 행복했죠. 사실은 공연장에서 보던 그 응원봉을 광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 신기했어요.

김현정 : 신기했죠. 그리고 보면서도 에너지가 막 느껴지고 요런 기분.

3. [0:09:55] 마니또 게임, Hurt 리믹스 비하인드

김현정 : 그래요. 따뜻한 연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다섯 분의 소녀들,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이게 몇 번째입니까?

팜하니 : 데뷔한 이후로는 오늘 세 번째인 것 같고,

김현정 : 세 번째 크리스마스?

팜하니 : 그 전에는 한 개? 두 개였나? 저는 민지랑 거의 여섯 번이나 다섯 번이나...

김민지 : 맞아요. 둘은 되게 더 오래되긴 했어요.

김현정 : 두 사람은 같이 또 연습하고 하면서? 음.

팜하니 : 근데 다섯명으로서 한 네 번째인 크리스마스인 거 같아요.

김현정 : 네 번째 크리스마스. 아이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다섯 사람 모이면?

김민지 : 되게, 되게 멋있고 따뜻하고 분위기 있게.... 무대를 합니다. (다들 웃음) 좋은, 좋은 무대를 합니다.

김현정 : 아니 안 놀아요? 놀 시간은 없어요?

팜하니 : 무대 위에서 노는 거죠. 네.

다니엘 : 저희가 무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뭔가 무대 위에서도 버니즈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특별한 날에.

김현정 : 무대에서 즐기는 게 느껴져요. 우리 다섯명의 친구들은 그게 느껴지고. 오늘 라디오 하러 와서도 사실은 리허설하고 이런 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니엘 씨.

다니엘 : 정말요? 정말요?

김현정 : 정말로. (웃음) 아니 그러면은 무대에서 즐기고 나서 다섯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럴 때는 뭐하고 놀아요?

다니엘 : 게임도 하고... 모르겠어요 (웃음)

팜하니 : 저희, 저희... 게임은 안해...

김민지 : **We don't really game.**

팜하니 : 저희 게임 안 해요 거의. (웃음) 저희, 그 크리스마스 때는 놀 마니또 하거든요 저희끼리.

김현정 : 마니또 게임?

팜하니 : 네 꼭 해요. 이게 저희끼리 꼭 해야 되는 약간, 저희만의...

김민지 : 전통.

팜하니 : 그쵸. 그래서 올해도 마니또를 이미 다 뽑았고, 열심히, 아마 각자 선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 그럼 지금 누가 누구의 마니또인지 모르는 상태?

김민지 : 아직 몰라요.

김현정 : 선물만 사놓은 상태? 와. 크리스마스 밤에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지 : 맞아요. 무대 끝나고 모여서 이제 사실 "나였어~" 뭐 이렇게.

다니엘 : 맞아요.

강해린 : 우리 그날이예요?

김민지 : 그날 해야지!

강해린 : 아 오케오케.

김민지 : 힘드실 것 같으세요? *(강해린, 아니아니 하며 손을 절레절레 흔든다)*

다니엘 : 이게 방송되는 날 맞죠?

뉴진스 : 그쵸. 맞아요.

다니엘 : 오호.

김현정 : 선물 뭐, 뭐 샀는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강해린 : 아 근데 뭔가 유추...? 할, 하지 않을까...

김민지 : 네 될 것 같아요. 유추할 것 같아요.

김현정 :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유추가 가능해요?

김민지 : 그 멤버를 위한 선물을 사가지고...

김현정 : 아, 취향을 딱 아니까? 하니 하면 이거, 해린이 하면 이거, 다 알아요 이제?

강해린 : 얼추... (웃음)

김현정 : 그럼 마니또 게임하고 놀고. 로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 술게임 하잖아요.
(다들 웃음, 김현정 'APT' 손짓을 하며) 여기는 미성년자가 많아서 그런 건 안 되고.

김민지 : 그쵸.

팜하니 : 아직은.

김현정 : 혹시 노래 같은 것도 하면서 좀 놀니까? 무대가 아니어도?

김민지 : 노래를 틀고...

이혜인 :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가끔 놀 때 있긴 해요.

강해린 :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이혜인 : 가끔 막 너무 힘들 때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 때 그 상황을 가사로 붙여서 부르고...
(웃음)

김현정 : 조금 가능해요?

강해린 :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팜하니 : 나도, 나도 기억이 없는데?

이혜인 : 뭐, 예를 들면... 아 여기서 할 수 없어. (다들 웃음)

김민지 : 왜 왜 왜!

강해린 : 뭐야! 뭐야?

다니엘 : 뭐야!

이혜인 : "힘들지만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들 웃음) 약간 지금은 되게 재미없지만 그 상황에선 되게 재밌게 잘...

김현정 : 혜인씨, 요건 약간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이고~ 힘드네~" 이 분위기인데 약간?

(뉴진스 폭소, 고개를 떨구는 혜인에게 민지가 "괜찮아? 괜찮아?" 하며 손부채질을 해준다)

김현정 : 성숙하고 좋습니다. 고런, 고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힘든~" 요런. (웃음) 아니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했냐면, "Hurt" 리믹스 곡의 앞부분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디토를, (뉴진스 : 맞아요) 다섯 분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부른 그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는 건가?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김민지 : 그런데 그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어요. (뉴진스 호응) 그날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 빨리 텐션을 올려서 에너지를 내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땀 부르고 가자! 이래서 그런 에너지였어요.

강해린 :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입으로 뭔가를 뱉고 있는데 뭘 뱉고 있는지 잘 모르는... (다들 웃음)

김현정 : 야 이 친구들 잘 논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들었는데, 지금, 지금 갑자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디토 앞부분, 그 느낌 살려서, 가능해요?

강해린 : 네네네.

팜하니 : 그럼요.

김현정 :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다니엘 : Do it. Let's do it.

팜하니 : Okay.

김현정 : 오케이 렛츠 두잇! (웃음)

다니엘 : 갈까요?

김민지 : 그 오프닝 주셔야 돼요.

(♪뉴진스, **Ditto**의 후렴을 **Hurt** 리믹스처럼 외치며 **Hurt**가 흘러나온다)

김현정 : 오 요렇게 **Hurt**라는 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다니엘 : 리믹스도 진짜 좋아요.

김현정 : 좋다, 진짜 좋다. 요렇게 연결되는 곡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Hurt** 재생 끝)

김현정 : 이게 갑자기 흥이 나네. 이렇게 하니까 흥이 나네.

팜하니 : 사실 그 영상, 처음 때 찍자고 하셨을 때 원래 디토 위한 영상이었거든요. 원래 디토 음악 씩워서 만든 그런 약간, 필름 같은 영상이었는데, 찍고 나서 편집하시다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디토는 아닐 거고 **Hurt** 리믹스로 붙일 거라고 하셔서 그렇게, 사실 그렇게 됐어요. 원래 디토 영상에...

김현정 :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그게 신기하게도.

팜하니 : 네! 그래서 보면서 너무 예쁘게 찍어주시고... 그 당시에 딱 저희 데뷔 활동이 이제 끝날 때쯤이었고, 그리고 디토랑 **OMG** 이게 컴백하는 딱 그 약간 초반? 이어서 뭔가 저희 데뷔 활동이 이제 예쁘게 마무리하고 넘어진- 약간 넘겨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예뻐던 것 같아요.

김현정 : 너무 좋구, 지금 또 그 에너지가 막, 막 느껴지는데, 흥이 오른 김에... 제가 답가로 우리 다섯 친구들의 노래를 잠깐만 좀 불러 봐도 괜찮아요? (뉴진스 호응)

다니엘 : 저희야 너무 좋죠.

김현정 : 팬들이 싫어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뉴진스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현정 : 자. 됐어요? 에코 좀 빵빵하게 넣어주세요. (뉴진스 호응)

[♪김현정, 'Supernatural' 을 빵빵한 에코로 부른다]

김현정 : "My feeling's getting deeper"

뉴진스 : Deeper!

김현정 : "내 심박수를 믿어"

뉴진스 : 믿어!

김현정 : "우리 인연은 깊어"

뉴진스 : 깊어!

김현정 :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살짝 춤을 춘다, 뉴진스 호응)

다니엘 : 이 노래를 부르실 줄이야.

김현정 : 저의 최애곡. Supernatural.

뉴진스 : 정말요?

김현정 : 사실은 이게 요 다음에 울동이 있잖아요. 요기서 더하면 우리 스태프들이 싫어해. 주책이라고. (뉴진스 웃음) 요 정도까지. 고맙습니다. 어우 땀나네요. 창피하네요.

다니엘 :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김현정 : 감사합니다. 일단 이럴 때는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니엘 웃음)

다니엘 :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4. [0:17:10] Darling, Darling

김현정 : 김현정의 뉴스쇼 크리스마스 특집. 여러분 미니 콘서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그리고 헤인과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 이번에는 하니 씨의 솔로곡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뉴진스 호응)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하니 씨?

팜하니 : 제가 오늘 부를 곡은요, 사실은 제목은 없는 곡이에요. 네. 그런데 팬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온 가사를 약간 노래 언급하면서 그 가사를 붙이고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목이 생겼는데 'Darling, Darling' 이라는...

김현정 : 'Darling, Darling.' 와우 너무 스weet한 곡이네요 정말.

팜하니 : 그런데 저 누구 앞에서 부른 게 처음이라... 아까 리허설 했을 때 저 가사 다 까먹었거든요. (김현정 웃음) 그래서 이번에도 까먹을까봐...

김현정 : 그것도 좋아요. 까먹는 것도 귀한 영상이에요. 오늘 하니 씨가 누군가 앞에서 부르는, 첫 번째로 부르는 그 곡을 여러분 들으시는 겁니다. 'Darling, Darling'?

팜하니 : 네.

김현정 : 'Darling Darling'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니 - Darling, Darling]

(하니가 직접 기타를 치며 부른다)

Darling darling, I heard you call my name.
It sounded so sweet, too sweet for me to claim.
Simmer down my dear tonight,
The world is racing round this time.
Fear is quietly sneaking by,
Whispering all different types, but...
Darling darling, I only heard my name.

Darling darling, No need to calculate.
Despite what we do the earth will still rotate.
Faster away slips by time,
Flashing right before our eyes.
Now another year's gone by,
something we both can't rewind, but...
Darling darling, Regrets just aren't our way.

Darling darling, My worries melt away.
Just being with you,
Hope that we never change.
Tell all you want this time,
Both my ears are open wide.

Talk to you through secret rhymes,
Back and forth you and i.
Darling darling, Oh just to stay this way.

Darling darling, Tell me you feel the same.
This time I'll call your name.

(뉴진스 환호)

팜하니 : 안 까먹었다!

다니엘 : 잘한다. My gosh.

김민지 : 너무 예쁘다.

강해린 : 너무 너무. (엄지손가락을 든다)

다니엘 : I got goose bumps, oh my god.

김민지 : The point is that.

김현정 : 하니 씨, 저 잠깐 나가서 울고 와도 돼요? (뉴진스 호응)

다니엘 : 저도,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요.

김현정 : 어우. 정말, 정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걸 제가 느낄... 와.

팜하니 : 아... 우시면 제가 울 건데. (웃음)

다니엘 : 진짜 최고의 위로곡이다. 최고의 위로.

김민지 : 하니 진짜 울어요. 안 돼요. (웃음)

김현정 : 이 곡을 진짜 고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니 씨한테 이제 솔로곡 한 곡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사실은 부를 수 있는 레퍼토리가 되게 많은데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팜하니 : 되게 많아요. 일단은 어... 이 곡엔 이렇게... 냈다라고 하기 보다, 쓰다가 버니즈 분들한테 공유한 이유는, 그 당시에 되게 저희, (울컥함을 참으려) 허어어.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김현정 : 울/지/마. (다들 호응)

팜하니 : 저희 다 같이 되게 살짝 힘든 시기여서 뭔가... (울컥함을 참으려) 어우 망했다. (다들 호응)

다니엘 : Oh no!

김민지 :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다니엘 : Oh my, (눈물이) 떨어졌어.

팜하니 : (눈가를 살짝 훔치며) 아니야. 난 끝까지 말하겠어.

김현정 : 지금 하니 씨가 이야기하다 눈물이 나서, 어떡해.

팜하니 : 저 좀 눈물 나도 좀, 좀 이해해 주세요. 에헤헤.

김현정 : 휴지 좀, 여기 휴지 좀 준비해 주세요.

팜하니 : (휴지를 받으며)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김현정 : 네. 예. 자 휴지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하니 씨가 눈물이 나서 지금 여러분 눈물 살짝 닦고... 그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이 시기쯤이 되면은 한 해가 쪽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래요. 하니 씨 지금 노래까지...

(하니, 눈물이 난 혜인을 가리키며 웃는다)

김현정 : 혜인, 혜인 씨까지 울면, 큰일 났다! (웃음) 휴지 좀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작가님. 휴지 좀.

이혜인 : *(눈을 질끈 감고)* 우리 동기화가 너무 잘 돼! 동기화가 너무 잘 돼 잉...

다니엘 : *(휴지를 주며)* 우리 약속했잖아!

김현정 : 우리 다같이 손 잡고 한바탕 울고 시작할까? (다들 웃음)

다니엘 : 이게 뭐야 (웃음)

김민지 : **** guys.

팜하니 : 그니까.

김민지 : You can do it.

이혜인 : *(다니엘이 휴지를 주자)* 괜찮아요오.

다니엘 : 괜찮아요? (김민지 웃음)

이혜인 : 목소리가 짜증날 뿐.

김현정 : 잠깐 진정을 좀 하시고.

(뉴진스, 웃으며 분위기를 진정한다)

김현정 : 조금 어려웠던 시기에. 응.

팜하니 : 네! 그래서 뭔가, 생각 정리를 하다가... 제가 워낙 기타를 많이 치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 그때 찍었던 영상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노래는 왜냐면 쓴 이유 되게 중요한, 약간 저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 이유? 때문에 쓴 곡이어서. 히히히. 이렇게, 어떻게 공유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눈물을 닦으며)* 그래서 이걸 버니즈 몰래 모여서 불러줘야 되나, 아니면 라이브 켜서 불러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해서 불러야 되나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부를 때마다 눈물나는 거예요.

김현정 :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팜하니 : 그래서 막, 멤버들한테 보여주기 되게 어려웠고. 막, 누구한테 영상 보내주긴 아직, 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아직 약간 상처가 되게 아직...

김현정 : 아몰지 않아서.

팜하니 : *(끄덕이며)*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니엘, 얼굴을 가린다)

김현정 : 다니엘 씨까지 우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소녀들.

팜하니 : 아 진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뉴진스, 울면서 웃는다)

김현정 :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모여 가지고. *(웃음)* 하니 씨, 하니 씨 괜찮아요. 근데-

팜하니 : 아무튼... 네!

김현정 : 어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팜하니 :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부른 거예요. 네.

김현정 :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힘들 때, 힘들 때 눈물을 머금고 만든 노래, 눈물을 머금고 부른 곡들은, 다른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심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하니 씨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 모두가 기뻐하고 흥겨운 크리스마스지만 어딘가에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힘들어하고 있는 어른들, 그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다니엘 : 맞아요.

김현정 : 지금 이 소녀들의 눈물이 오늘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팜하니 : 저희 근데 원래 이렇게 막 자주 울진 않아요! 저희 원래... (김현정 웃음, 다니엘이 거든다)

김현정 : 이렇게 막 슬프고 이럴 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은 누구예요?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다섯 명 중에.

다니엘 : 보통 민지 언니.

김민지 : 아이 그, 제가 많이 안 울어가지고.

김현정 : 어, 민지 씨. 어떤 식으로 바꿔요? 분위기를.

김민지 : 뭐 그냥... (다들 웃음)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일단 시간을 좀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잘 이려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조금 일단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웃음)

김현정 : 그렇죠. (웃음)

김민지 : 다들 퇴근하셔야 되니까. 조금 정리가 되면 기타 드리고 넘어가자. 그러는 편입니다.

김현정 : 민지 씨가 그럼 재밌는 이야기도 제일 많이 해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다니엘 : 네, 네.

김민지 : 다 재밌긴 해요. 다들, 다들 엄청 분위기 메이커고.

강해린 : 근데 민지 언니는... (웃음)

김민지 : 넘어가! (웃음)

강해린 : 끊임없이 솟아나요 뭔가 주제가? (팜하니 : 맞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뭐 가끔 한두 개 생각나면 아, 이렇게 말하고 그게 이제 딱 그 소재가 고갈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인데, 여기 민지 언니는 그게, 그냥 계속 계속 솟아나서 그런 점에선 대단한 것 같아요.

김민지 : 이야기 보따리처럼 말해줬는데... 아이 뭐... (웃음)

다니엘 : 아이디어 뱅크.

김현정 : 아이디어 뱅크, 에너지의 원천.

김민지 : 아닙니다, 아닙니다.

팜하니 : 넘쳐요 넘쳐.

다니엘 : 넘쳐 넘쳐.

5. [0:27:51] 택시 스몰토크

김현정 : 그나저나,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맞으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분위기를 느끼고 이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니 씨.

팜하니 : 네.

김현정 : 크리스마스, 이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팜하니 웃음) 어딘가 돌아다니고 크리스마스에 이러다가 재미있는 일 생기고 그런 적은 없어요?

팜하니 : 아...

(작가진 쪽의 지시사항을 보고 뉴진스 쪽소)

김민지 : 야, 해야겠다 해야겠다.

김현정 : 뭔가 있구나.

팜하니 : 택시, 택시 얘기요?

김현정 : 택시 얘기가 뭐예요?

팜하니 : 제가, 제가 이제 연습생 때부터 맨날 택시타면 이제 전...

김민지 : 기사님들의 스몰 토크.

팜하니 : 맞아요. 저 **Small talk** 약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 힘드시잖아요.

김현정 : 오 그렇죠 택시기사님들. 예예.

팜하니 : 약간, 말하기 시작하면 되게 신나지시니까. 그 흥을 약간 유지해 드리고 싶어서 (뉴진스 웃음) 택시, 택시를 탈 때마다 스물푹 하는데. 제가 그, 공항에서 혼자 이렇게 호주 왔다가 공항에서 혼자 택시 타고, 타는데 이제 스물푹 하다가 어... 어떻게 시작했지?

김현정 : 참고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하니 씨는 호주에 살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지금 굉장히 잘하지만 (팜하니 웃음) 사실은 꼬끔, 아직은 약간 서툰 것도 있잖아요.

팜하니 : 맞아요, 맞아요.

김현정 : 이제 그런 상태에서 택시기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팜하니 : 네. 그래서 얘기 시작하다가 어디에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 호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들 하다가 이제 제가, 저희 일은 음악을 하는 거니까. 약간 항상 타면 저는 유학생인 척해요.

김현정 : 어, 기사님들이 못 알아보시는...

팜하니 : 그리고 제가 한국인인 척 얼마나 해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살짝 서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법 좀 이상하게 써버리거나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 : 팜국어.

팜하니 : 네. (뉴진스 웃음) 경험자로서 그냥 유학생 하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저한테, 그-

김민지 : 몇 살.

팜하니 :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스무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대학교 다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네, 저 대학교 다녀요" (뉴진스 웃음)

김민지 : 거짓말쟁이.

팜하니 : 그래서 어디 다니냐 했는데, 저는 사실 저희 대학 축제 때 말고 가 본 대학교가 없어요.

김현정 : 그럴 수 있죠. 잘 모를 수도 있죠.

김민지 : 아는 대학교.

팜하니 : 아는 대학교는 축제에서 했던 대학교들만 알죠. 근데 웬지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대학교는 조선대였나? 조선대학교인 거예요.

김현정 : 조선대면 저 광주에 있는 조선대.

김민지 : 맞아요.

팜하니 : 네. 그래서 제가 조선대 다닌다고. (웃음)

김현정 : 저 조선대 다녀요, 애기한 거예요 이제. 재미있어집니다. 예.

팜하니 : 했을 때 기자님이 "어 서울 아닌데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김현정 : 서울 아니예요. 예. (웃음)

팜하니 :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래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해요". (다들 웃음)

김민지 : 서울에서 광주까지.

김현정 : "서울에서 광주까지 통학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팜하니 : 뭐어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어디서 졸업할...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어요. 보통, 보통 기사분들이 제가 '한 말' 던지면 약간 자기 인생 얘기 시작하셔서...

김현정 : 어. 하시는 분도 계시죠.

팜하니 : 근데 전 듣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김현정 : 하니 씨는 잘 받아주니까 막 재미있어서 하셨구나 기사님이.

팜하니 :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거의 인터뷰 받듯이... 계속 뭐 끝없이 질문하는데...

다니엘 : 갑자기 식은땀 나고 막.

팜하니 : 네. 와... 저 진짜 뒷자리에 계속... 그, 어디서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고등학교 축제는 안 하잖아요.

김현정 : 고등학교 축제는... (웃음) 델 데가 없어.

김민지 : 아쉽게도.

팜하니 :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고 아는 고등학교는 한림예고 말고는 없어요. 민지가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림예고 다녔다고 했어요. (웃음) 그래서 그분도 "한림예고?" 왜 예술과, 막 그런 보통학교 약간 미술적인 학교니까 "그런 학교잖아요 어떤, 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아악... "노래해요. 저 노래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생활, 계속 생활, 그 숙소 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유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랬어요.

김현정 : 계속 소설을 썼군요 하니 씨가. 기사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 : 힘들었겠다.

팜하니 : 근데 너무 귀여우셨던 게, 마지막 때 내려 주시면서 가다가 막, "나중에 미래 가수 되시는 거 아니세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열심히 해야죠!" (김현정 웃음)

다니엘 : 비전이 있으셨군.

팜하니 : 재미있었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김현정 : 아니, 백미는 그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대에 이제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학생이 가게 되면 거기서 머무는 거죠. 그 방학 때 오죠. 근데 "저는 매일 통학해요" 여기서 지금 기사님이 "대단한 학생이구나"

팜하니 : 약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포즈) 하시는 느낌이었던 것인데.

6. [0:33:00]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김현정 : 그런 에피소드.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헤인 씨.

이혜인 : 저요? (웃음)

김민지 : 원데? 의미심장해.

다니엘 : 뭔가요?

이혜인 : 저는, 이제 연습생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약간 그 생활에 약간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랬으니까 저한테는, 원래 보통 연습생 들어가면 이제 숙소 생활하고 그리고 휴일이 있는데, 휴일 때 말고는 뭔가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김현정 : 그렇죠 연습 계속해야 되니까

이혜인 :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돼서. 근데 크리스마스날 딱 이렇게 휴일이 하루 딱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본가로 갔는데 제가 오빠가 있거든요. (웃음) 근데 오빠가... 지금 얘기해도 정말 화나네요. (다들 웃음)

김현정 : 생각만 해도 화나.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오빠가.

다니엘 : 뭐지? 뭐지?

이혜인 : 크리스마스 날 보통 우리 식사하자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김현정 : 식사하자고 하면 파스타 먹을 수도 있고, 뭐 뷔페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이혜인 : 그쵸? (웃음) 그런데 마.라.탕.을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김현정 : 시원하고 얼큰하게.

다니엘 : 나 이거 기억나. 기억난다.

이혜인 : 근데, 아니 너무 확고하게 자기주장을 막 펼치면서 이래서 마라탕을 먹어야 되고 이래서 마라탕을 먹어야 되고...

김현정 : 혜인 씨가 원했던 건 뭐예요 원래?

이혜인 : 저는 약간! 그... 저도 양식을 생각했죠.

김현정 : 조금 우아한 이런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뭐를 이렇게 쓸거냐. 예예.

이혜인 :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근데 웬 마라탕을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근데 더 화났던 건,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뭔가 못마땅했어요. 근데, 먹고 나왔는데 맛있는 거예요...! (웃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현정 : 맛있는 나한테 화가 나.

이혜인 : 맞아요. 그래가지구 조금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정 :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에피소드다 정말. 해린 씨 어때요? 해린 씨는.

강해린 : 저는 사실...

(하니가 의자를 돌려 해린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김민지 : 이렇게 부담스럽게... (웃음)

다니엘 : 이게 돌아가니까 계속 움직이게 돼요.

팜하니 : 재밌어.

강해린 : 옛날에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현정 : 저기 해린 씨, '옛날' 이라 그러셨죠 지금. 지금 저, 몇 년생이시죠? (뉴진스 웃음)

강해린 : 그... 제 기억이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는 좀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은 보통 연습생이나 아니면 데뷔한 후니까, 데뷔한 후에는 대부분 이제 무대가 있거나 아니면 뭐 리허설이 있거나 그런 좀 무대 준비를 하느라 딱히 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웃음)

김현정 : 참고로 여러분. 해린 씨는, 2006년생입니다. 옛날 일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나이에요. (웃음) 그럴 수 있는 나이에요. 민지 씨는 어때요? 민지 씨의 크리스마스?

다니엘 : 언니 기억나요?

김민지 : 아니요...? (웃음) 저도 그, 제가 연습생을 중학교 1학년 때쯤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한국 나이도 스무살? 뭐 스무살인데, 그래서 한 6년 정도가 다 연습하고 무대 한 기억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뭐 했지?

강해린 : 우리 무대 하지 않았나?

팜하니 : 같이 식사하고 몰래 감독님...

다니엘 : 아 맞아

김민지 : 그러니까 뭐 했는데...

이혜인 : 무대...

강해린 : 무대했는데?

이혜인 : 그 핑크색 옷 입고...

김민지 : 아 무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친한 감독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찍어주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던...

팜하니 : 어?

김민지 : ...식사 아니었어?

강해린 : 뭐 했어요?

팜하니 : 우리 우리 우리...

이혜인 : 조작하셨어. (다들 웃음)

김현정 : 저기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김민지 : 제가 저번 달 일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죄송해요.

김현정 : 아마 마니또 했을 겁니다. (뉴진스 호응)

다니엘 : 와, 저희보다 더 잘 아시네요.

김민지 : 내가 놓쳤네. 마니또였네.

다니엘 : 마니또였죠.

김민지 : 어우 오늘 아침에 뭘 했는지도 자꾸 헛갈려.

김현정 : 다니엘 씨.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다니엘 : 저는, 아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면 추억이 많이 떠올리긴 해요. 어, 그 데뷔 후에도 멤버들이랑 같이 보낸 그 재밌는 추억들도 많았는데. 제가 그 호수에 살았을 때 저희는 뭔가 크리스마스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점심이나 저녁을 꼭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탁에 이런 데코를 하고...

김민지 : 식탁에, 식탁에.

다니엘 : 식탁에. 어 무슨,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들 웃음)

김민지 :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돼요.

김현정 : 예. 식탁에.

다니엘 : 식탁에... (웃음)

김현정 : 아니 세탁기에 할 수도 있어요. (뉴진스 웃음) 꼭 못하는 법은 없어요. 괜찮아요.

다니엘 : 세탁이라고 했군. 아... 근데 아무튼 저희가 네. 식탁에 이렇게 데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마다 약간 각자의 요리를 챙겨와서 다 같이 나눠먹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저랑 제 언니가 그때 조금 욕심이,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약간 우리가 이번에 진짜 뭘 제대로 하고 가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직접 요리해서 가자 해서 저희가 **Gingerbread House**를 만들었어요. (다들 호응) 진짜 근데 보통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 때 약간 그 틀은 이렇게 사서 그냥 데코만 각자 하고 하는 식이잖아요.

김현정 : 그렇죠. 그렇죠.

다니엘 : 근데 저희는 아니었죠. 저희는 스케치부터 처음부터 그거를 다 만들어서 쿠키까지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되게 웃겼던 게 저희가 초콜릿을 조금 약간, 그때 약간 미쳐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웃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초콜릿 묻히고 난리 나고 신났는데. 저희가 되게 뿌듯해하고 갔는데, 딱 가고 그 디저트를 먹으러 이걸 깨려고 했어요 하우스를. 근데 그게 굳어서 안 깨지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김현정 : 이제 쪼개서 먹어야 하는데, 나눠 먹어야 하는데 깨지질 않아.

다니엘 : 그래서 진짜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결국 먹을 수 있는 시점까지. (김현정 웃음) 근데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는 추억이었어요.

김현정 : 잊을 수는 없었겠네요 정말. 먹을 수는 없었지만 잊을 수는 없는 추억.

다니엘 : 네 맞아요.

7. [0:39:53] First December With You

김현정 : 언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데. 언니가 얼마 전에 데뷔했잖아요.

다니엘 : 아 네. (뉴진스 호응)

김현정 : 그럴죠? 여러분 다니엘 씨의 언니도 가수예요. 그, 언니랑은 싸우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원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많이 싸우면서 크는데.

다니엘 : 저희도 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어 뭔가, 뭔가 쌍둥이 같아요. 저랑 제 언니는.

김현정 : 몇 살 차이?

다니엘 : 5살 차이.

김현정 : 5살 차이.

다니엘 : 네. 그런데 멤버들이 항상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팜하니 : 아 진짜 닮았어요.

이혜인 : 똑같이 생겼어요.

김민지 : 진짜 닮았어요. 제가 처음 마주쳤을 때 딱 다니엘, 누구를 마주쳤는데 너무 다니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어디 가? 라고 말을 할려고 했는데 저를 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다들 웃음) 그래서 제가 너... 어.... 어...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 다니가 아니구나...

김현정 : 올리비아 마쉬 언니. 사진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둘 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우리 다니엘, 가능하면 다니엘의 목소리로 올리비아 마쉬 언니의 곡을 한번 청해 들어도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뉴진스 호응)

다니엘 : 좋아요. 사실 저희 언니가 최근에 그 'First December With You' 라는 곡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곡이 제가 엄청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Festive' 한 느낌이 있어서. 어 약간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어려운 곡이거든요. (김현정 웃음) 그래서 제가 과연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1절이라도 조금 불러볼게요. (뉴진스 호응)

김현정 : 'First December With You' 요거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과 함께하는... (팜하니 : 첫 12월) 첫 번째 12월'. 어, 너무 좋습니다. 음미하면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니엘 - First December with you]

(다니엘이 가사를 조금 다르게 부른다: 이하 원곡가사)

Moonlight is brighter with you by my side
Midnight, It's getting cold but we're alright
All I want is you on the 25th day
Oh I've made up my mind
So just tell me you'll stay
Want you here with me now
I just want you for my own
Tonight

Oh I just wanna feel your kisses in the snow,
No I don't want you to go
Oh I just wanna celebrate, never burning low,
So baby go with the flow
It's you, oh honey it's you
The one that I choose, to make all my bells ring

No, I can't get enough of your love

This Christmas

My first December with you

(뉴진스 환호)

김현정 : 이야~ 딱 오늘을 위한 노래네요.

다니엘 : 제가 사실 데모곡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김현정 : 언니 연습할 때.

다니엘 : 네. 그래서 그 데모곡 가사가 너무 익숙해서 그게 바꾸고 나서 제가 부를 때 너무 헛갈리는 거예요. (웃음)

김민지 : 원지 알지, 원지 알지.

김현정 : 가사가 한번 바뀌었구나. 아무렇게나 불러도 아무도 몰라요. (다들 웃음) 그냥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뉴진스 호응)

다니엘 : 감사합니다.

김현정 : 고맙습니다, 다니엘 씨. 근데 언니 곡까지 이렇게 연습할 시간도 있어요?

다니엘 : 사실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서, 저희가 또 연말 무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뒤에서 민지가 팔을 힘차게 흔든다)* 근데 어젯밤에 이제 조금 집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조금 연습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네. 연습 시간이 없어서...

김민지 : 아니요. 너무 잘했습니다. 최고였어요.

팜하니 : 그레이트.

김민지 : 퍼펙트.

김현정 :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야, 진짜 진짜.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이 템포가 바뀌면서 신나지는 부분에서 다 덩실덩실. 저까지 막... *(다같이 리듬을 탄다)* 이 기분.

8. [0:44:11] 산타는 없어, 조용한 링크, 평범하지 않아서

김현정 : 아니 그나저나, 그나저나 우리 이제 다니엘 씨 언니 얘기를 했는데, 민지 씨.

김민지 : 네

김현정 : 민지 씨가 삼형제 아니에요?

김민지 : 삼... 남... *(다들 폭소)*

김현정 : 삼남매, 삼남매.... *(웃음)* 그러네. 뭐 형제나 남매나 하여튼 세 명, 세 명.

김민지 : 네, 형제같이 지내고 있는 오빠와 동생이 있습니다.

김현정 :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또래의 아이, 그러니까 셋이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가 셋인 집이 많지는 않잖아요.

김민지 : 맞아요.

김현정 : 그렇죠 친구들 중에.

김민지 : 제가 오빠랑 2살 차이가 나고 동생이랑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김현정 : 아 그렇구나.

김민지 : 그런데 그래도 잘, 되게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김현정 :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되고 이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이제 트리 밑에다 놓고 가시는데 사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거기.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 걸 챙겨가는 거거든요.

팜하니 : 맞네요!

김현정 :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세 남매가.

김민지 : 근데 엄마 아빠께서 되게 공평하신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김현정 : 산타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웃음)

김민지 : 이게 '산타는 없다. 선물은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늘 감사하고 원하는 걸 골라라' 약간 이러셨거든요.

김현정 : 굉장히 현실적으로.

김민지 :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서로의 트러블 없이. 되게.... 낭만... 낭만은 없는...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요. (웃음)

김현정 : 그 정체를 그럼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민지 씨네는.

김민지 : 완전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현정 : 어렸을 적부터. "민지야" (다들 웃음) 엄마 부르셔서, "민지야. 그 산타 있잖아, 그거 나야"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말해. 그리고 나에게 감사해" 이런 식으로.

김민지 : 그쵸 그쵸.

김현정 : 굉장히 현실적인 부모님들. 옆에 해린 씨, 해린 씨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봐도 가장 말수가 적은 멤버인 것 같아요.

강해린 : 맞아요. 근데 약간 1대 1로 있을 때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뭔가 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듣는 걸 더 위주로 하는 편이긴 해요.

김현정 : 아, 그러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뭐 원하는 게 있고 이래도 뭐 선물 사주세요 월원해요 뭐 이런 거 표현 안 하겠어요 우리 해린 씨는.

강해린 : 뭔가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아... 이거... 이걸로 할 수 있냐고...

김민지 : 굉장히 공손하게.

강해린 : 그... 링크를 보낸다거나...

김현정 : 그러니까 조용히 말없이 그냥 링크를 보내는 스타일이시군요.

강해린 : 약간 제가 뭔가 골라서 그거를 이제 뭐 사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뭔가, 뭔가 뭔가... 사고 싶은 욕심이 많이 줄어서... (웃음)

김현정 : 아니 우리 그런데 해린 씨같이 조용조용한 사람이 말없이 조용하게 링크 보내면 켈 무서워요. (뉴진스 동의) 안 사줄 수가 없어. (웃음)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어요? 뭐 팬으로 받은 선물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주신 혹은 친구가 준...

강해린 :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어... 제 생일 때? 제 생일 때 제가 어떤 신발을 사고 싶었는데 그 신발이 이제 공... 공홈? 공홈에서 사기에는 그 너무 빨리 품절되고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좀 다시 리셀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김현정 : 재판매하는.

강해린 : 네. 거기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게 제 사이즈가... 이건 TMI인데 245 정도다 보니까.

김현정 : 여러분 245랍니다. 기억해주세요.

강해린 : 되게 많이... 많이...

김민지 : 그치 보통 사이즈니까.

강해린 : 맞아요. 그래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도 그게 좀 많이 올랐어요. 리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갖고 싶은데... 아 이걸 사달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보냈는데, 그거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사주셔서 제 생일날 받았어요. (다들 호응)

김현정 :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와. 어머니 너무 멋있으시다.

김민지 : 너무 섬세하시다 진짜.

김현정 : 그런 선물을 잊을 수가 없죠.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장 언니가 민지 씨 하니 씨 2004년생, 우리 혜인 씨가 2008년생 열 여섯 살... *(이혜인, 순간 생각한다)*

팜하니 : 네 맞아.

이혜인 : 맞아요? (다들 웃음)

김민지 : 본인도 잊고 살아서...

김현정 :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혜인 : 나이가 좀 헛갈려 가지고 ...

김민지 : 그렇지. 그니까 나이가 2개인데 다시 하나가 되고...

김현정 : 그럼 몇 살에 데뷔를 했어요?

이혜인 : 열네 살에 했네요...?

김현정 : 열네 살에 데뷔. 가수 활동을 하기 전에도 근데 키즈 모델도 하고, 그 유명한 EBS 보니하니 출신이기도 하죠.

김민지 : 유후! *(다들 웃음, 하니가 민지의 무릎을 살짝 때린다)*

이혜인 : 네. 근데 그냥 게스트거나 좀 한 명... 네.

김현정 :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편하게 놀 수도 없고 또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끝나면 떡볶이집 가고 뭐 어디 놀러 가서 문구점 가서 뭐 구경하고 이런 생활도 어렵잖아요.

이혜인 : 그랬던 것 같아요.

김현정 : 그런 평범한 삶 같은 게 좀, 그리고 이렇진 않았어요?

이혜인 : 음... 그, 제가 평범하지 않아서 *(웃음)*

(뉴진스 환호)

김민지 : Mic drop, mic drop. 언니다.

이혜인 : 아 근데, 좀 어릴때부터 조금, 되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유별났던 것 같긴 한데.

김현정 : 유별났다, 유별났다.

이혜인 : 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아무래도 아역 활동?

김현정 : 그렇죠 아역, 아역 배우로도 활동하고.

이혜인 : 뭔가 네, 키즈 모델? 키즈 모델로 (웃음) 키즈 모델로 활동을 하니까 이제 빨리 학교에서 조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무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학교에도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친해지려고 하면 계속 또 떨어져 나가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혼자, 혼자 혼자 교실에서 또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김현정 : 혼자?

이혜인 : 막 곤충도 잡아가지고 막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다니엘 : 귀여워.

이혜인 : 그래서... 괜찮, 괜찮았... (웃음)

김현정 : 결론은 괜찮았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구나 우리 혜인 씨가.

이혜인 : 그런가 봐요. (웃음)

김현정 : 그러면은 우리 언니들하고 같이 활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불과 열네 살? 있었던 건가요?

이혜인 : 네.

다니엘 : 대단한 친구.

김현정 : 힘들진 않았어요? 그 생활들이.

이혜인 :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민지 : 나는 힘들었는데. (뉴진스 웃음)

김현정 : 언니는 힘들었는데 혜인이는 안 힘들었던 이걸 뭘까?

이혜인 :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였어서. 저는 뭔가 그, 지금 그때는 잘 몰랐는데...

김현정 : 민지 씨 왜요. 민지 씨 왜요 (웃음)

이혜인 : 아 미안해요 언니. (웃음) 아 SORRY~ 뭔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뭔가... 자기가 선택한 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현정 : 어~ 요거는 혹시 준비된 답변?

이혜인 : 아니요 (웃음) 아닌데...

김현정 : 아, 너무나 성숙한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열여섯 살 열여덟 살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들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어린 나이인데도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노래에도 깊이가 있어요. 그게 저는 사실 느껴지는데.

9. [0:52:05] Weightless

김현정 :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아주 특별한 5명의 천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노래를 우리가 또 하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라이브 한 곡 한 곡이 정말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좀 더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니 씨가 자작곡을 많이 쓰시죠?

팜하니 : 아하하하, 사실은 저 많이 안 써요. 그냥, 그냥, 많이 나서 그렇게 보이는... 약간, 예를 들면,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웃음)

김현정 : 그 노래는 모티브를 어떻게 얻어요?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팜하니 : 저요. 일단은 저는, 어, 노래는 되게 저한테 되게 엄청 큰 힐링 주는데, 이렇게 특히 기타치고 노래 부르면 뭔가 이게 다른 힐링이 와요. 그래서 그냥 막, 스케줄 막 엄청 이제 껍차 있는 하루를 보내고 숙소에 와도 세 시간씩 기타 치고 막 많이 그랬었어요. (김현정 : 세 시간씩?)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늘 곡을 쓰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게, 이게 약간 일부러 뭔가 꺼낼려고 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와도 막 되게 별로였어요. 엄청 별로였어요. (웃음) 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그냥 뭐, 언젠가는 제가 만약에... 약간 제가 하는 일이 맞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니까, 그냥 시간한테 맡기고... 그냥 그냥 그냥 되게 다양한 곡들 쳐보고 불러보고 되게 기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봤다가 그냥 쓰기 시작했어요. (웃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김현정 : 이렇게 나온 자작곡 중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자작곡을 오늘 이 시간 김현정의 뉴스쇼 크리스마스 특집에서 공개하는 게 사실입니까!

팜하니 : 사실은요... (웃음)

김민지 : 사실은!

팜하니 : 지난주에 올렸어요. (다들 폭소)

김민지 : 뽐뽐뽐. (비련 어린 곡조로)

김현정 : 첫 공개는 아니예요? 최초 공개는 아니예요?

팜하니 : 원래 저도 원래 너무 첫 공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너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첫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하다보니까 뭔가... 일단... 한번 영상에 그냥 올려볼까? 올려볼까? (다들 웃음)

김현정 : 그 마음도 이해해.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일단 반응을 보고, (네) 보고 괜찮으면 뉴스쇼에서 공개하자.

팜하니 : 괜찮은건지.

김현정 : 괜찮았죠?

팜하니 : 왜냐하면 또 제가 살짝 걱정했던 게, 크리스마스가 약간 기쁜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살짝 곡이 어떻게 보면 기쁜 곡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의미 있는데...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불러도 괜찮나, 약간 감분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김현정 : 그래서 올려봤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뉴진스 호응)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제가 의미를 좀 붙여볼게요. 방송 첫공개. (뉴진스 호응)

팜하니 : 아마 팬분들이 다 이 영상 찾아볼 거예요.

김현정 : 좋습니다. 하니 씨의 자작곡 방송 첫공개 제목은?

팜하니 : 그 Weightless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니엘 : 무게가 없다.

김현정 : Weightless. '무게가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팜하니 : 하 단어 있는데? 어떤 버니즈가 엄청 예쁘게, 어떤 예쁜 단어 번역했는데... 까먹, 까먹었네.

다니엘 : 버니즈가 잘 번역해 주실 것 같애.

팜하니 : 무중력? 무중력? (뉴진스 호응)

김현정 : 무중력. 와 되게 멋있네요. 어떻게 이 곡은 쓰게 되신 거예요?

팜하니 : 일단,

김민지 : 우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팜하니 : 저는 안 울 거야. 이번엔 다른, 다른. 그냥 그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뭔가 노래 쓰면서 머리 생각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날을 보내는데, 제가 약간 하는 말이 너무 안 좋았나? 뭔가 제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안 좋았나? 싶었던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 갔는데 계속 계속 고민이 된 거예요. 뭐 워낙 제 성격이 그렇긴 한데, 계속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가 으 모르겠다! 하다가 기타를 그냥 풀려고 기타 치다가 그냥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작했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읽고 있었던 책도 살짝 그 주인공 뭔가 그런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고, 제 생각 마음 정리하면서 적었어요.

김현정 : 이야~ 너무 좋습니다.

김민지 : 천재다.

다니엘 : 팜천재.

김현정 : 여러분. 뭔가 삶에 찌들어 있고 지금 스트레스 속에 있고 이런 분들 (다들 웃음)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가벼워지시면 돼요. 무중력 상태로. (웃음)

팜하니 : 약간 그 제목이, 어젯밤에 제목이 생각났어요. 영상 올리기 전날. 제목이
생각났는데 뭔가 걱정이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이 노래에 다
쏟아내면 몸이 가벼워질 마음으로 무중력으로 제목을 지었어요.

다니엘 : 멋있다. 우와.

김현정 : 너무 좋습니다. 하니 씨의 새 자작곡, 'Weightless' 무중력,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니 - Weightless]

(하니가 직접 기타를 치며 부른다)

Two feet, heavy head
Full of thick regrets
Funny I forget
Maybe it's something that I said
Words that came through my breath

Stitching's loosing thread
City's close to dead
Can't see up ahead
Tell me I'm all you need again
The way it played out in my head

Life just slips through my fingers
Just can't figure out whatever this could be
Maybe I could linger here in your mind

Cold heart needs a rest
Burnt it out again
Banging on my chest

Hoping that your acknowledgement
Would make me feel better again

Life just slips through my fingers
Just can't figure out whatever this could be
Maybe I just might be running out of time

Who am I to picture nothing's clearer now
My world is shrinking
Say that you'll come meet me in another life

Just a moment in time
Tell me something nice

Two feet, heavy head
Full of emptiness
Funny you'd forget
Promise me when we met again
You'll read my heart this time instead

(뉴진스 호응)

김현정 : 이야... 우리 다 무중력 속으로,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

김민지 : 진짜.

다니엘 :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우주에.

김현정 : 너무 좋았어요, 하니 씨 정말.

팜하니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 [1:00:44] 가족이 됐습니다, 사람으로서 모여있는게 제일 좋아요

김현정 : 크리스마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다섯명의 천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니씨의 방송 첫공개 자작곡 **Weightless**, 무중력까지 듣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계속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니가 부끄러워한다)* 저는 너무나 황홀한데, 오늘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가 이제 6일 남은 거. 6일 남은 거예요.

다니엘 : 얼마 안 남았다. 와우...

김현정 :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눈을 감고 올 한 해 쪽 떠올려보면 음, 기뻐던 순간 뭐 아쉬웠던 순간 누구나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텐데 그래도 나는 이 순간이 진짜 소중한데, 요거 남들에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난 너무 기뻐하 하는 그런 순간 한번 꺼내볼까요? 다니엘 씨 어때요?

다니엘 : 정말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중에서 뭘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에 멤버들과 너무 친해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정말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고, 이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더욱더, 전에도 가족 같았지만 더욱더 끈끈해지고 가족 같아진 것 같아서 그 사소한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 뭔가 진짜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현정 : 아니 사실은 매일같이 같이 연습하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이래도요. 이게 야, 내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는 같이 좀 고생도 해보고 (웃음)

다니엘 : 그럼요.

김현정 : 같이 눈물도 좀 흘려보고!

다니엘 : 맞아요, 오늘처럼! (웃음)

김민지 : 다했다 야 다했다.

김현정 : 이게 올해였구나. 이것도 되게 귀중한 경험이거든요. 다섯 명이 그룹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요. 조금 슬플 때도 있고요. 아 이거 아닌데 할 때도 있는데 그걸 다섯 명이 으쌔으쌔 해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 단단해지는 건데 그 경험을 했군요. 다니엘 씨.

다니엘 : 네. 그런 것 같아요.

김현정 : 그리고 가족이 됐군요.

다니엘 : 가족이 됐습니다. (웃으며 뒷쪽 멤버들을 쳐다본다) Yeah, family family.

김현정 : 누가 아빠야? 누가, 누가. 아빠는 누구예요 아빠는. 민지?

다니엘 : 아무래도? (웃음)

김민지 : 오... 오케이. (다들 웃음)

팜하니 : 근데, 계속 바뀌, 근데 저희끼리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김민지 : 맞아요.

팜하니 : 이게 상황 맞춰서 멤버들이 하는 역할이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다니엘 : 맞아요.

김현정 :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면.

팜하니 : 예를 들면... 되게 많은데? 근데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예를 들면 정리할 게 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웃음)

김현정 : 애들아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걸로?

팜하니 : 네, 네.

이혜인 : 아이패드를 들고 와요. 착착. (키보드 치는 흉내)

김현정 : 아이패드를 들고? (웃음)

팜하니 : 네 막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

김현정 : 그런 식이고.

다니엘 : 가끔씩 하니 언니가... 저희가 요리를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니 언니가 가끔씩 요리하고 뭐 음식 같은 거 준비, 되게 엄마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끔씩 하니 언니도 엄마가 되는 것 같고.

김현정 : 뭘 제일 잘해요. 우리 하니 씨는?

팜하니 : 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 요리 더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하려고 해요.

다니엘 : 많이 해주세요.

김현정 :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니엘 씨.

다니엘 : 저는 하니 언니의 닭... 뭐였지?

팜하니 : 아 그, 그거...

다니엘 : 그... 그게 너무...

김민지 : 닭국수.

다니엘 : 닭국수!

팜하니 : 아직도 생...! 그거 2년 전인데.

다니엘 : 저 그거 잊을 수 없어요.

김현정 : 어머, 닭국수를 끓여요? *(하니와 다니엘이 대답한다)* 저도 못 끓이는걸? 대박!

팜하니 :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김현정 : 어 그럴구나. 하니 씨가 또 음식을 잘하는구나.

다니엘 : 근데 그것보다 뭔가 이렇게 자그만한 거를 챙겨주는 게 많아서. 네. 그런게...

김현정 : 그럴구나. 우리 해린 씨 헤인 씨는 그럼 어때요? 좀 이 다섯 명 중에.

김민지 : 근데 헤인이랑 해린이가 되게 팀에서 어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뭔가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 도움을 줘야 할 때,

김현정 : 약간 이게 이제 결정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김민지 :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결정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해린 씨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링크 보내는 거죠. *(웃음)* 이거다.

다니엘 : 네, 네.

김현정 : 이렇게 단호하게 조용히 한마디.

다니엘 : "쓰읍"

김현정 :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 막내 헤인 씨는 주로 역할이 그러면?

강해린 : 뭔가 저는 제 생각엔 여기에 뭔가, 생동감과 약간 발랄함과 장난스러운 뭔가 그런 느낌을 추가해 주는 것 같아요.

팜하니 : 맞아요.

김현정 : 한마디로 말해서 활력, 활력.

강해린 : 맞아요, 맞아요.

김현정 : 오늘 저 헤인 씨 손톱 한번 보여주세요. 네일 한번 보여주세요. *(헤인이 빨간 네일을 뽐낸다)* 요런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빨갈게. 이런 활력 좋아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도 늘 좋지 않거든요. 싸우고 이런 날은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이럴 때는 없어요?

팜하니 : 저희 근데 싸우는 것보다, 연습생때부터도 대화를 풀자라는 게 되게 제일 큰, 약간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다 말 안 해도 같은 마음이어서, 꼭 대화를 풀어요.

김현정 : 의견 충돌이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김민지 : 서로 예민해져서 순간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좀 거리를 두고 좀 약간 시간을 두고 대화로 해결하는 편이에요. 뭔가, 대화를 이렇게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들 뭔가 이 일을 해결하고 싶고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일단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마음이 다들 되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막 틀어진다거나 싸웠던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헤인 : 뭔가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뭔가 크게 받아들이고 그 하루 종일 엄청 그것만 생각하고 다음 날 이제 갔는데, 아 생각보다 진짜 별일 아니었던 적도 되게 많았고, 그냥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김현정 : 그게 사실은 가족이에요. 나는 "이거 어떡해" 이러고 갔는데 또 상대 멤버는, 언니들은 "어 그래 뭐 헤인아 이리 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말없이.

다니엘 : 맞아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김현정 : 좋습니다. 끈끈한 한 해가 됐다는 거 다니엘 씨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올해 가장 값진 무엇이었다. 하니 씨는 어때요? 올해 기억나는 순간..

팜하니 : 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니엘 : 너무 어려워.

팜하니 : 네. 너무 많은데 어... 저는, 근데 저희는 올해 되게 큰 무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했어요. 했고 뭔가 일적으로는 많죠. 근데 저는 일이긴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도 그 일을 떠나서 저희가 그냥, 그냥 다섯 소녀로 모여 있을 때 제일 좋아해요. 그게 약간 이렇게,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개그도 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루가 끝나고...

김현정 : 개그도 치고 (웃음)

김민지 : 개그맨이었어 우리?

팜하니 : 버니즈는 알 건데 저 되게 장난스러워요. 저 장난기 되게 많아요. 근데 뭔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지한? 것들을 다 떠나서 하루가 끝나고 저희 뭐 있으면 그냥, 데뷔한 사람들로 말고 그냥 사람으로서 모여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김현정 : 그러니까 스타, 가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다니엘 인간 헤인 인간 민지 인간 해린이 좋은 거예요.

팜하니 : 네. 근데 올해는 더욱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김현정 :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

11. [1:08:39] 우리가 가까워진 2년, 무대를 하는 순간, 성장했던 한 해

김현정 : 올해 사실은 하니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푸른 산호초 부른 게 선풍적인 인기를... (뉴진스 호응) 저도 이렇게 좀... (안무를 따라한다) 이런 춤은 미리 연습했던 거예요? 너무 예뻐요. 정말.

팜하니 :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거 일단, 그 곡을 받았어요. 이 곡 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일단 도쿄돔은 되게 큰 데잖아요. 그리고 저희, 일본에서 약간 저희, 약간 저희만 약간 무대인 거 처음이어서, 약간 그분들 문화를 잘, 이렇게 뭔가 존경하면서? 약간 **Respect**하고 무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죠. 퍼디닝들과 같이. 퍼디닝들 막 그, 마츠다 세이코 님의 옛날 영상도 보고, 막 요새처럼 안무 연습 영상 없으시잖아요. (웃음)

김현정 : 그렇죠 옛날분이니까.

팜하니 : 근데 춤을 막 찾아보셔야 하는데 최대한 원조랑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저희 다. 그래서 퍼디닝들, 막 댄서분들 막 모든 영상을 찾고, 막 이런 동작했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해서. 저는 저랑 댄서분들이 혼자 무대에 나온 거였지만 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신 무대여서 그 결과물도 너무, 저도 너무 좋아했고 반응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김현정 :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하면 우리 헤인 씨는 어땠어요? 올 한 해.

이혜인 : 저는 멤버들이랑 가까워진 만큼 버니즈 분들이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 많지만... 음 뭔가 그런,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보통 SNS 들어가서 뭔가 아무래도... 대중분들의 뭔가 의견?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버니즈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 마음을 다 알고 있는게 너무 느껴져서 되게 감사했고, 아 우리가... 지금 한 이제 2년? 3? 2년 반? 2년 반 정도 이제 지나가는데, 아 이 시간 동안 되게 많이 가까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김현정 : 올해의 키워드는, 우리 다섯 명의 키워드는 그냥 '끈끈' 이네. 다섯명끼리도 끈끈,

팜하니 : 버니즈 분들도...

김현정 : 팬들도 끈끈이야. 이야... 끈끈함을 느낀.

이혜인 : 풀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웃음)

김현정 : 풀 광고! (웃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민지 씨 어때요? 민지 씨.

김민지 : 어, 저는 약간 무대를 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되게 매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무대에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저와 그걸 약간 같이 호응하고 있는 팬분들과의 순간은 항상 되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고.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약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여서, 이렇게 스탭분들도 같이 계신데 그냥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웃는 게 느껴질 때. 그게 되게 사소한데 너무 약간... 저한테 일할 에너지를 주고 좀 그 순간, 매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김현정 :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무대도 많이 섰잖아요. 뉴진스. 근데 그런 무대도 물론 좋겠지만, 이렇게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요런 무대 좋아하는구나. 저희가 내년에 또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웃음, 뉴진스 호응)

김민지 : 가능하면!

김현정 : 또 만나고 싶어요!

팜하니 : 너무 좋죠.

김현정 :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즐기고 있는 게 느껴져. 오늘 다섯명의 소녀들이.
오케이.

김민지 : 그리고 저희가 올해, **ETA**가 작년에 나온 곡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ETA**가
다시 역주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김현정 : 그것도 심지어 외국...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ETA'가 흐른다. 뉴진스가 춤춘다]

김현정 : 외국 유튜버가 이 노래를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역주행했다고 들었어요.

김민지 : 맞아요.

김현정 : 예.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팜하니 : 그렇죠. 상상도 못 했죠. 왜냐면, 일단 노래는 약간, 미국에서 제대로 막 홍보하거나
그런 노래랑, **EP**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롤라팔루자라는 행사에서만 **ETA** 하고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ETA**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신 분들만 아시는 곡일 텐데. 그
처음부터 막 스포티파이, 막 조회수, 조회수래, 막 그, 그 감상 횟수인가? 막 그 듣는 숫자
있잖아요 막. 확 올라갔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버니즈한테.

김현정 : 스포티파이면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

팜하니 : 네 음원 사이트에서 갑자기 듣는 그 숫자가 확 올라오고, 해외에서 막 난리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영상 보니까. (웃음)

다니엘 : 깜짝 놀랐어요.

김민지 : 되게 잘 즐겨주셨더라고요.

팜하니 : 딱 그 분위기에 맞게.

김민지 :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한번 즐겨봐야겠다.

김현정 : 가수들이 느껴질 정도로.

이혜인 : 그래서 바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김현정 : 찾아봐야겠다. 그 순간 또 잊지 못하시는구나, 민지 씨는.

김민지 : 이런 약간 작은 것들이 너무 되게 재미있고.

김현정 :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김민지 :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김현정 : 아, 그래요. 해린 씨는 어땠어요? 해린 씨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강해린 : 그... (민지와 하니가 마이크를 모은다) 어머머머 (웃음). 뭔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순간 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 한 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올 한 해가 어땠나를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뭔가 순간보다는 이번 연도에 대해 생각을 많이,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이번 연도는 뭔가 저라는 사람이 되게 큰 발전을 한 연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뭐 되게 떨리네? (웃음) 떨리네. 제가 뭔가 외부에서 느끼는 그런, 뭔가 외부 세계와 내적으로 느끼는 내적 세계를 구분한다고 치면 둘 다 너무 많이 느꼈고, 또 둘 다 너무 되게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뭐 멤버들, 아까 말한 뭔가 멤버들과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음,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제가 세상을 다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모습을 또 많이 보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여러 생각들이 이제 약간, 약간 마인드맵처럼 약간 퍼지듯이 많이 추가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떨리지? 그리고...

김민지 : 잘하고 계세요.

김현정 :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강해린 : 그리고 제 안에서는, 제 안에서 되게 큰 무언가가 일어났던 해였던 것 같은데. 어떠한 뭔가를 기점으로 되게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약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이제 여러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여러 모습을 어...

김현정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해린 : 네. 여러 모습을 이제 제 스스로 많이 찾았고. 그리고 어, 되게 저에게 있는 또 다른 양면적인 모습을 또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서. (웃음)

김현정 :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강해린 : 되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12. [1:17:58] IT'S SUPERNATURAL

김현정 : 제가 이 다섯 소녀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음악도 좋아하고 퍼포먼스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다섯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쪽 들으면서 "와 이 소녀들이 올 한 해 정말 깊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헤린 씨의 이야기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어져서 이제 그 깊어진 내면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진짜 기대가 돼요.

뉴진스 : 저희도요. 저희도 기대가 돼요.

김현정 :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기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좋은 메시지들을 담은 진심 어린 노래들을 더 많이 만들 것 같은, 팬으로서의 그 기대감, 가져도 됩니까!

뉴진스 : 네!

김현정 : 좋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오늘 크리스마스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소원. 소원은 사실은 되든 안 되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소원 한마디씩. 하나씩 좀 대볼까요 우리?

김민지 : 좋아요.

김현정 : 좋아요, 좋아요. 누구부터? 나 이거 소원이다.

이혜인 : 우리 그거 하자. 이어 말하기.

김민지 : 아니야 아니야. 혼자 말해 (고개를 절레절레, 다들 웃음)

팜하니 : 각자 소원, 각자 소원.

김현정 :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막내 혜인 씨.

팜하니 : 약간 개그, 왜 말했을까!

김민지 :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다니엘 : 아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김현정 : 오케이. 혜인 씨부터 소원.

이혜인 :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김현정 : 아프지 말고. 아 좋아요. 민지 씨.

김민지 : '아프지 말고'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했으니까... (다들 웃음) 뭔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한... 고통 받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 고통 받지 않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해린 씨?

강해린 :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웃음) 그냥... 어, 그냥 멤버들과, 멤버들끼리 서로 더 이해하고 더 그냥, 잘 지금...

김민지 : 지금만 같아라?

강해린 : 지금처럼 잘 지내, 지내자.

김현정 :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니 씨.

팜하니 : 저는요, 어... 정말 많은데 일단 그냥 던지긴 해요. 그냥 저희 한국에서 엄청 큰 무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만의 팬미팅.

김현정 : 얼마나 큰 무대? 어느 정도를 더 원해요?

팜하니 : 하아아아아... (뉴진스 호응) 모르겠어요!

이혜인 : 뭐야? 이 야망 가득한. 야망 가득한 소리는.

팜하니 : 아니야!

김현정 : 아니 제일 큰 무대면은 사실 잠실종합운동장 정도 채우는 거 아닌가?

팜하니 : 저 뭐 약간, 그런데 큰 무대라는 표현이 저희에게는, 막 사람들이 약간 엄청 많이 모이는 것보다 저에게 되게, 저희 약간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큰 무대라는 표현을 쓸 때. 저희 올해 도쿄돔 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아직 계획 된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웃음)

김현정 : 계획 없지만.

팜하니 : 없어요, 아직은. 근데 뭔가 상상만 해도 이거 하면, 했으면 진짜 재미있을 텐데, 이거 하면 진짜 멋있을 텐데 하는 약간 상상이 이게 자꾸 펼쳐지니까 빨리 이루어지고 싶어요.

김현정 :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잠실종합운동장도 좋고 고척돔도 좋고. (뉴진스 호응)

팜하니 : 버니즈! 다 같이 모여서.

김현정 : 좋아요. 다니엘 씨?

다니엘 : 진짜 너무너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 저는요, 저는 항상 소원을 빌 때 두 개를 빌어요. 하나는 저를 위한 거고 하나는 남들을 위한 소원인데, 멤버들이 사실 말한 게 남들을 위한 소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더욱 새로운 경험들로 어떠한 행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다들 웃음)

김현정 :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예뻐합니다.
너무나 예뻐합니다.

우리 다섯명의 소녀들과 함께한 김현정의 뉴스쇼 크리스마스 특집 따뜻한 미니 콘서트.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 느낌 요대로 우리
내년에 다시 한 번 만나요.

뉴진스 : 아 너무 좋아요.

김현정 : 진짜예요. 진짜. 아 오늘 너무, 저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다섯 명 소녀들의
목소리,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기타 소리 다 들으면서 제가 되게 위로를 받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였고요. 아마 오늘 방송 함께하시는 우리 애청자들, 팬들도, 떠들썩한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다들 웃음) 위로받는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내년, 기대하겠습니다. 고척돔! 오케이?

다니엘 : 오케이.

팜하니 : 뭐... 네 뭐...

강해린 : 뽀얏다, 뽀얏다. 난 몰라. (웃음)

김현정 : 우리 이제 마지막 곡으로 'Supernatural' 들으면서 헤어질 건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 뉴스쇼 청취자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우리 메리크리스마스
외치면서 헤어질까요?

뉴진스 : 좋아요.

김현정 : 준비되셨습니까?

다니엘 : 네.

김현정 : 여러분,

뉴진스 : 메리크리스마스!

김현정 : 고맙습니다.

[뉴진스 - Supernatural]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헤인이 춤춘다)

Stormy night, cloudy sky

In the moment, you and I

One more chance, 너와 나

다시 한번 만나게 서로에게 향하게

My feeling's getting deeper

내 심박수를 믿어

우리 인연은 깊어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I don't know what we've done

되돌아가긴 싫어 알아차렸어

Don't know what we've been sold

여기 빛나고 있어 So it's sure

Golden moon, diamond stars

In a moment, you and I

Second chance, 띄워봐

하늘로 날아갈 때 너와 내게 향하게

My feeling's getting deeper

내 심박수를 믿어

우리 인연은 깊어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I don't know what we've done

되돌아가긴 싫어 알아차렸어

Don't know what we've been sold

여기 빛나고 있어 So it's sure

It's supernatural

It's supernatural

거짓말 안 할래, 너도 말해

Attention we should pay

To what is coming through

We had no idea, it's crystal clear

Love is here, sitting next to you

돌아와서 너와 나

Golden moon, diamond stars

In a moment, we unite.

(트리 앞에서 다섯명이 인사한다. 끝.)

정말로 멋진 2024년 수고했습니다

NEWJEANS NEVER DIE